연해주 화훼사역에서 얻은 성찰과 교훈

곽동원 선교사

1. 들어가는 이야기

올해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고려인들과 함께하며 살아온 저희 부부의 세월이 2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식으로 파송받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삶과의 접촉점을 삼을 것인가를 살펴보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7년간 현지와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간의 선교훈련을 거쳐 2009년 초에 러시아 연해주로 파송되었으며, 이민 생활 30여 년간 종사해 온 원예사업 전문인으로서 지역개발과 현지인 고려인 교회의 성장을 돕는 일을 사역으로 정하고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 선교지로 연해주를 선택하게 된 이유

160여 년 전 넓은 땅 연해주로 기근을 피해 이주한 농민들과, 독립운동을 위해 모여든 '까레이스키'라 불리우던 우리 한인들이 일본과 투쟁하던 중,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열차에 실려 떠난 20만 명의 고려인 중에 2만 8,000여 명이 얼어 죽었고, 그해 겨울을 살아남은 이들이 우리 민족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과 근면함으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통해 많은 노동영웅을 배출하고 안정된 삶을 살던 그들은 1991년 12월 소련 붕괴와 더불어 불어닥친 연방국들의 독립으로 인해, 또다시 많은 고려인들이 조상들의 땅인 연해주로 역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이 보장되지 못한 재이주의 현실은 비참

하였고, 그나마 일찍 연해주로 뛰어든 교회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1)

그 어려운 고려인들의 삶을 목도하고,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그동안 미국 이민 생활과 교회 생활의 풍요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돕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2002년 마음에 품은 연해주 선교는 신앙적 소명이나 선교적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감정적 동기였습니다. 매년 개인적으로, 또는 단기선교로 2008년까지 같은 지역을 방문하며 내가 진행할 사역을 물색하고 마음에 품은 청소년들과 교제를 지속하였습니다.

(1)러시아 중앙아시아 이주 한인의 역사. 이상근.국학자료원.2010)

a. 고려인 농가 노동 능력의 확인과 화훼사역의 가능성 시장 조사

*** 고려인 상황:** 연해주로 역이주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어떤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이든, 중앙아시아에서 직·간접적으로 현지의 일반적인 영농방식과는 다른 '고본질'이라 불리는 고려인 특유의 영농방법으로 농사짓는 방식을 어려서부터 접하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농사일에 친숙했으며, 그 기술로 이들은 이미 야채 모종 재배 및 농작물 재배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 중앙아시아 고려인 고본질. 백태현& 이에리사. 비교문화연구 제 6집.1호 2000.)

*** 러시아 꽃시장 상황:** 러시아 민족은 익히 알려진 대로 대단한 문화민족으로, 특히 꽃에 대한 사랑은 "러시아인은 빵 없이는 살 수 있으나 꽃 없이는 살 수 없다", "러시아 거리

에는 편의점보다 꽃가게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꽃의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여성의 날이나 발렌타인데이, 전승기념일, 입학과 졸업 시즌에는 꽃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블라디보스톡 인근 소도시마다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화단용 꽃 모종이나 극소수로 재배되는 조경수들을 판매하는 꽃 전문 시장이 열립니다. 주목할 것은 연해주의 겨울이 6개월 정도로 길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통한 속성재배로 화단용 꽃 모종을 키워 봄 꽃시장에 출하하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3)러시아 축제 문화속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특징. 황영삼.슬라브연구 제 17권 1호)

b. 고려인 청년들의 교회 지원

2002년 이후 7년 동안 매년 단기선교를 통해 이어진 청년들과의 교감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교류를 이민교회 청년들과 엮는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선교사 헌신을 위한 훈련과 1기 사역 계획

a. 선교훈련

2008년 한국으로 입국하여 선교훈련 단체인 GMTC(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에서 선교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타문화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역에 임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 유지, 가정생활, 자기관리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훈련을 마쳤습니다. 2008년 여름 아내와 함께 한국 GMTC 37기 상반기 훈련을

수료하였고, 2009년 1월 GMP America에 허입되었으며, 2009년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b. 1기 사역계획 (영농사역)

* 중앙아시아에서 역이민한 고려인들의 영농 교육 및 지원

* 비닐하우스 설치와 농사를 위한 소자본 단기 대출

* 한국 농촌진흥청 전문인 초청을 통한 일반 고소득 농작물 재배 지도

* 지도 농가 심정 설치 지원

* 러시아인들의 화훼 선호도 파악 및 꽃 재배 시도

c. 교회사역

* 지원 농가의 자연스러운 교회 인도

* 고려인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고려인 교회인 우스리스크 소망교회 후원

* 교회 청년 대학생 장학금 후원 및 미국 유학생 선발

* 교회 노인 생활 지원

* 파송 및 후원교회의 단기선교 유치

* 우스리스크 소망교회 찬양팀의 해외 공연 실행

4. 1기 사역 실패의 좌절과 터득한 문제점

a. 선교사 개인의 무능력 확인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우리 부부 자신의 현실감이 결여된 무능력의 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던 화훼재배에 대한 선진 기술이 수십 년 낙후된 기초 농업에는 적용할 길이 없었고,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의 원초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b. 현지 사역을 위한 비자 취득의 어려움

기본적인 비자 문제도 낙후된 관공서의 후진성으로 인해 취득이 요원했으며, 체류 연장을 위해 사역지를 두 달에 한 번씩 떠나야 했기 때문에 언어훈련조차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합류한 대형교회 프로젝트도 산재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c. 동역단체의 타문화 선교전략의 부재

선교지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알고 있던 화려한 하나님을 위한 선교 공동체는, 그 프로젝트를 설계한 대형교회 지도자의 측근들로 구성된, 선교전략이 통일되지 않은 동상이몽의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건전한 비판이 수용되지 않고, 프로젝트를 기획한 대형교회의 주재원처럼 타문화 선교에 대한 전략적 고심 없이 지도자에게 끌려다니는 동역 선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 때 배웠던 타문화권 선교전략이 수립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방문할 때마다 그의 안목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 수많은 계획 수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선임 영농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그의 젊음의 순수한 열정과 고려인 사회를 향한 선교전략적 접근성 및 수용성을 좋게 평가하고 동역을 원했으나, 그가 가진 사회적 폐쇄성과 고려인 사회와의 목표 공유 실패로 인해 영농센터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연해주 1기 사역 중에 겪은 여러 종류의 좌절은 나의 전문성을 살린 사역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였고, 1차 안식년을 가짐으로써 사역을 재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4)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 총론J 마크 테리,J.D페인. 엄주연 역)

d. 1기 사역 시행착오 속의 깨달음으로 사역 방향 수정

그나마 다행히 교회사역은 7년 동안 고려인 청년교회와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지속으로 청년 장학사역, 노인 경로사역, 교회 조경사업으로 미약하게나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배움은 대형교회 프로젝트 사역 안에서 관계로 인한 혼돈 속에 동역자들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관계성과 인내심의 한계를 노출했고, 이를 통해 내가 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고려인 농가와 지속적인 교제 및 재배 현장 방문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재래식 영농방법을 숙지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2기 사역에서 수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관심과 도움으로 외교부의 사역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5. 1차 안식년(2014년 1년)과 새로운 계획

a. 영농 및 화훼사역

* 자체 선교 영농센터 '들꽃향' 설립을 위한 부지 구입 및 개인 사역으로의 전환

* 파송 및 후원교회, 그리고 개인 기도 후원자들과의 기도 후원 모임 결성

*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와 일년생 화훼재배 유도

* 10년 장기계획으로 러시아 자생 조경수 재목을 발굴하여 묘목 재배

* 발아율이 높은 일년생 화훼 종묘 공급 루트 확보

* 외교부의 '들꽃향' 센터 지원을 통한 지원 농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b. 교회사역

1기 사역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6. 2기 사역의 시작

a. 영농 화훼사역

2기 사역은 1기 사역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사역을 재개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도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격려에 힘입어 1기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문화 선교전략' 수립에 유념하게

되었습니다. GMTC 훈련 때 이해하지 못했던 선교적 용어들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설프나마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스리스크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아씨노브카라는 시골 마을에 3,000평 가량의 토지를 구입하고, 차고가 부설된 20여 명 수용 규모의 센터 건물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축사, 시범 재배를 할 수 있는 30m×7m 크기의 비닐하우스 5동을 건축하고 독자적인 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후원과 후방의 기도 동역자들의 도움, 현지 고려인 지원 농가의 근면함과 우리 부부의 꽃과 사람에 대한 진정성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해져 교회와 영농 화훼사역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사역에 천군만마와 같은 중앙 아시아인 입주 동역자 부부가 합류하게 되어 사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행히 체류 비자 문제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3년 멀티 비자가 가능해져 해결되었고, 언어 문제는 사역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려인이라 어느 정도 대화 소통이 가능한 데다, 대부분의 꽃 관련 용어들은 그리스 학명(Botanical name)으로 통용되고 있어 화훼 관련 대화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꽃 재배 농가들에게 발아율이 높고 시장성이 좋은 씨앗을 공급하고,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일본 토마토와 딸기를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2015년 고려인 한 가정으로 시작한 1년생 화초 모종(annual flower) 재배는 꽃의 품질과 다양한 품종에 매료된 구매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2022년 현재 50여 가정이 꽃 재배를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5) 고려인의 채소 재배.양근원.교보문고)

b. 들꽃향 프로젝트

우리 '들꽃향 원예사역'은 선교사가 수익을 창출하여 선교 대상자들을 고용하는 사업

장이 아닙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사방 4시간 거리에 흩어져 있는 꽃 재배 농가의 재배장과 판매장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새로운 품종을 컨설팅해 주고, 러시아 자연에서 채취한 조경수로 키워낼 수 있을 만한 품종을 시범 재배하여 판매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농가에 무상으로 샘플을 공급하는 시범 재배장입니다. 센터 주변을 시범 조경지로 만들어 앞으로 경제적 풍요의 시기가 오면 조경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회 청년들을 육성하며, 잉여 농산물로 교회의 소외된 노인들을 돕고 센터 건물 유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 **ㄱ) 양봉사업:** 새로운 사업으로서 원주와 익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양봉 업체 농업법인 BEE ON FARM'과의 협력으로 양봉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꽃 재배 농가의 봄 꽃시장 점유율은 2015년 2기 사역 출범 이후 블라디보스톡 인근 7개 꽃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 디지탈 양봉의 이해와 전망.BeeOnfarm.정원기 대표)

* **ㄴ) 다육식물 재배:** 2018년부터 잎꽂이로 시작한 다육식물도 4년 동안의 증식을 통해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자라고 있으며, 2020년부터 우스리스크 'za gorade'라는 화훼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무상 분양된 묘목은 노보루사노부카라는 마을의 12개 농가 가정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 **ㄷ) 구근 화훼 재배:** 또한 농어촌개발공사의 추천으로 충남 태안의 백합·튤립 구근회사의 블라디보스톡 시장 조사에 협력하였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와 크라스노다르 지역들에 진출한 미국 및 네덜란드 원예산업에 비해 낙후된 극동 지역의 현장 답사에 협조

한 감사로 많은 양의 구근을 기증받아 꽃 농가에 무상 증여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센터 옆의 토지 3,000평을 구근 작물 재배를 위해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7)네이쳐 농업회사법인 국내 최초 화훼구근 러시아 정식수출(2020.11.24)

* ㄹ) **교회사역:** 2008년 '들꽃향 센터'를 우스리스크 소망교회 청년들에게 명의 양도하였으며, 2006년 이후 매년 3개 교회 청년 대학부의 정기 단기선교를 유치하였습니다. 우스리스크 소망교회 찬양팀의 미국 매 2년 순회공연을 진행하였고, 대학부 장학생에게 매년 4명~8명씩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 대학생 2명을 A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7. 2기-3기 사역 말기에 닥친 위기

2015년 재가동된 들꽃향의 사역은 1기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 선교와 교회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까지 순탄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갔으며, 장학생 청년들은 한국으로 진출하거나 고향에 남아 교회와 어른들을 섬기며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계획대로 찬양팀은 2년에 한 번씩 A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닌 섬기는 자로서 세 차례 순회공연을 하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의사와 신학 공부를 원하는 청년 2명을 유학 보냈으며, 한국과 A국교회 청년부의 단기선교팀 연해주 방문을 통해 세 나라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신앙적 교류를 주도하였습니다.

중국의 선교 길이 막히자 많은 선교사들이 연해주를 교두보로 새로운 사역을 모색하

기 위해 모여들었고, 들꽃향 센터를 전문인 선교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선교 사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긴장이 풀리고 조금씩 교만의 싹이 틀 무렵, 재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 ㄱ) 첫 번째 꽃재배 농가의 탈선:**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서히 세상이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 즈음, 첫 번째 꽃 재배 지원 농가로 자립에 성공한 고려인 부부가 교회 출석을 시작할 무렵 남편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그해 여름 남편이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더니, 두 달 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ㄴ) 유학 청년의 마약 중독과 신학생의 적응 실패:** 유학을 떠난 아들의 신변 이상을 느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 어렵게 그를 찾아내어 연해주로 돌아온 날, 코로나 사태로 모든 연해주 국제 항공편 취항이 동결되었습니다.

*** ㄷ) 2019년 코로나 창궐과 동역자의 구속:** 거의 일 년간 농장에 갇혀 새로 구입한 대지의 정지 작업과 교회 및 화훼 농가 확장에 전념하던 2020년 11월, 아내가 서류 문제로 미국으로 떠난 며칠 후, 늘 우리 부부 곁에서 자식같이 함께 살아온 센터 거주 동역자 부부가 갑자기 들이닥친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 ㄹ) 기록적 한파와 폭설, 비닐하우스 붕괴:** 겨울이 왔고 6,000여 평의 센터 부지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일부터, 비닐하우스 다육식물 관수와 센터 빼치카 난방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8년 만의 혹한과

폭설이 이어져 비닐하우스 2동이 붕괴되었습니다.

*** ㅁ) 공황장애와 우울증:** 대표 후원 농가의 몰락에서부터 6개월간 휘몰아친 다양한 위기를 겪으며, 그동안 활기찬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있는 공포와 감당하기 힘든 육신의 한계로 폐쇄공포와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겹쳐왔습니다.

*** ㅂ) 치료를 위한 본국 귀환,그리고 선교지 재입국 불발:** 끝내 센터를 교회 목사와 청년들에게 맡기고, 파송교회와 파송단체의 허락을 받아 2021년 초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핑계로 A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3개월의 안식월을 가지며 병원 치료와 더불어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관계 스태프들과 논의한 후에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 농장 정비를 하였고, 2022년 종묘 구입차 A국으로 재입국했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전쟁 발발로 A국 국민의 러시아 입국 제재와 항공편 동결이 겹쳐 발이 묶였습니다.

8. 은퇴 시기 고려와 사역 자기검증

고심 끝에 러시아 입국 가능성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허용하는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한국 여권 취득 기간 동안 GMTC에서 실시하는 경력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새로이 선교에 대한 철학을 재고하였고, 재난과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략적 조치, 그리고 슬기로운 사역 이양을 준비하기로

정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8)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 총론J마크 테리,J.D 페인.엄주연 역)

[2기 사역 고전 이유 분석]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 19:2)

*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1기 사역에서의 귀중한 깨달음을 잊고, 외형적·가시적 급성장에 자기도취되어 영적·육체적 헤아림 없이 사역을 키우려 했습니다.

*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유효기간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역 마무리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센터 사역을 위해 고용한 조력자들과 현지인 사역 수혜자들의 역할의 무게를 나의 능력치에 합산하여 형성된 내 자신의 과평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판단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착각했습니다.

* 선교는 나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아닌, 후방의 교회와 기도와 물질 후원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망각했습니다.

* 위기와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비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9. 새로운 사역 계획

*** a. 대한민국 전국에 고려인 교회 개척 지원 및 장학사역:** 2022년 초 발발한 전쟁 이후 한국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주한 블라디보스톡 우리 교회 출신 청년 지도자들이 개척한 전국의 7개 교회 자립과 대학 입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b. 들꽃향 센터의 현지 청년 교회로의 이양:** 25년간 함께 성장한 고려인 청년 교회로 들꽃향 센터를 등기 이전하여 운영권 전반을 이양하였습니다.

*** c. 농지의 효율적 임대 사용 추진:** 현재 이웃 국가를 선교 및 지원하려는 NGO 단체와 농지 임대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 나가는 말

솔직히 두렵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의 70대의 시작과, 24년 선교사역의 정돈과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주는 장애물의 두려움이 얼마간 나를 주눅 들게 하기도 했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는 객기가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진정성에 주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관리하

시는 촉이 나에게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의 계획에 시험하려는 만용에 유의만 한다면, 하나님도 나의 노쇠한 마지막 열정이 담긴 내 인생의 십일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은 선교가 내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목적이 아니었던 나의 감정적 이타주의를 사용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열매를 맺은 양 으쓱거릴 때 다시 한 번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썩은 줄 알았던 내 열매들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은 효율적 이타주의자"이십니다.

(9) 효율적 이타주의자. 피터 싱어. 이재경 역.교보문고)